

## 체중 1.6kg 초미숙아 심장수술 성공

서울대 소아흉부외과 김용진교수팀 개가

(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국내 의료진이 심각한 심장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1.6kg의 저체중 미숙아에 대한 심장 수술에 성공했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金容珍) 교수팀은 지난 2일 출생 체중이 1.6kg이고 '대동맥궁차단'이라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金모 아기(여)에게 심장수술을 해 현재 양호하게 회복중이라고 13일 밝혔다.

金양은 지난 2월 19일 심장과 대동맥이 단절된 대동맥궁차단 질환을 가지고 체중 1.6kg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동안 'PGE 5'라는 약을 투여해 생명을 유지해 왔으며 수술로 대동맥을 이어주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였다.

金교수팀은 초저체온상태에서 심장을 정지시키고 직경이 3-4mm 정도인 대동맥을 연결하고 심장 내 기형까지 교정하는데 성공했다.

金교수는 "아기가 워낙 작고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라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수술 밖에는 살릴 방법이 없었다"며 "현재 아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떼고 심장기능을 돕는 약도 끊었으며 우유도 스스로 먹고 있다"고 말했다.

yung23@yonhapnews.co.kr

(끝)